

죽음 교육 자료로서의 그림책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이 란*
현은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책 서사에 나타난 죽음관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것을 기독교적 죽음관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죽음을 다루고 있는 아동 대상의 그림책 13권을 선정하였고 이 도서들이 재현하고 있는 죽음과 그 의미,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를 글의 서사와 그림의 기호학적 의미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서 죽음을 다루고 있는 많은 도서들이 다양한 죽음관을 재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사후세계를 그리고 있는 그림책에도 다양한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죽음에 대한 교육이 죽음의 개념 인지도교육뿐 아니라 사후의 불확실성의 영역까지 포함해야 하는 신념과 주관성의 영역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교육자인 성인이 자신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도서를 선정해야 하는 일과 읽기 활동 시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죽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독교적 논의를 바탕으로 죽음을 다루고 있는 그림책에 나타난 비성경적 요소를 분석해 보이면서 죽음 너머의 세계 인식에 대한 저자의 거듭난 상상력과 비평가의 세계관 해석 능력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죽음관, 그림책 서사, 죽음 교육, 거듭난 상상력, 기독교 세계관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교수

I. 서론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의미구성에 동력하는 문학이며 아동과 성인을 이중독자로 하는 도서이다. 그림책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적 특성에 관한 연구, 예술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그림책은 우선 그림의 측면에서도 예술성을 드러내야 하며 문학적 특성인 주제와 소재에서 이상성과 환상성을 가져야 한다. 또, 선악과 관련된 아동의 모든 경험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독창성과 아이디어에 비중을 두는 질적으로 우수한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문숙 외, 2013: 12-13). 특히 그림책 이야기는 내적 세계, 가족, 사회, 심미적 세계를 다룰 수도 있지만 실제생활에서 자주 부딪치는 여러 상황이나 질문에 대답하여 줄 종교적 세계 역시 그 주제가 될 수 있다(김세희·현은자, 1995: 229-236). 아동의 성장을 고려한 문학 주제는 아동의 태도에 가치를 부여하며 아동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건강한 윤리의 표준에 기초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고문숙 외, 2013: 17). 따라서 그림책의 경우, 도서 선정과 그 교육적 활용에 있어 성인의 도움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그림책을 선정하고 아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되는 성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그 전달과정에서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책은 다양한 연구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으나 아동 독자의 세계관 형성에 미치는 효용과 영향력에 대하여서는 많이 밝혀진 바가 없다. 사실 오늘날 경제 불황 속에서도 국내의 그림책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¹⁾²⁾.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들조차 자신들이 선택한 개개의 그림책이 다루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세계관이 무방비 상태로 아동에게 주입될 때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은 더더구나 부족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아동 그림책 문학에서 즐겨 허용되는 판타지의 영역은 문학의 효용 중에서 즐거움의 요소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독서의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 장려되어 온 문학적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판타지 요소가 문학 속 죽음의 세계관에 대한 독자의 해석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1) http://www.yonhapmidas.com/special_plan/plan/2012-11/121105180156_265880 기사 참조.

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42526> 기사 참조.

하다. 아동문학의 판타지와 상상력은 등장인물의 죽음 이후의 상황에도 적용되어 나타나며 그 비현실성은 문학적 요소로서 이해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아동문학이 그리고 있는 죽음 이후에 관한 상상의 묘사와 표상이 얼마나 다양한 세계관을 재현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합적이고 난해한 세계관이 어린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문학은 다른 종류의 글과 달리 상상력이라고 하는 매개적 원리를 추구하며 이러한 상상력의 미학적 구현을 좋은 문학의 한 조건으로 상정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학의 효용 중 ‘즐거움’은 ‘교훈성’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다(김우창, 2001: 276; 현은자, 2003: 48-56; Noddleman, 1996, 김서정 역, 2012: 29-33). 이 두 효용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양면적인 속성을 가진다(김우창, 2001: 276). 여기서 상상력은 문학적 즐거움의 고유 영역인데 이러한 문학적 상상력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도구라는 이해는 기독교 문학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추태화, 1999; 현은자, 2003; Gallagher and Lundin, 1989, 김승수 역, 1995; Ryken, 1985, 권연경 역, 1991; Veith, 1990, 김희선 역, 1994). 이는 예술적 창작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미적 차원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한 소명의 수행으로서 이해하면서, 문학 형식을 아름답고 세련되게 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한 능력 중 하나인 상상력을 진리와 부합하게 최대한 펼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문학 연구자들 대부분은 인간의 상상력이 타락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의미에서 작가의 영적 갱생의 경험과 위로부터 오는 거듭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추태화, 1999: 67-79; 현은자, 2003: 28; Ryken, 1985, 권연경 역, 1991: 53-64; Veith, 1990, 김희선 역, 1994: 41-72). 위의 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듭난 상상력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저자의 위로부터 온 지혜를 형상화하였거나(고린도전서 2:6-16; 골로새서 2:2-3) 적어도 일반 계시에 의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 상상력으로 규정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로마서 1:19).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거듭나지 못한 상상력으로 그려진 문학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해석적 접근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학들은 진리가

거부된 이 세상의 현상적 이해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또 하나의 해석 작업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학들은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잃고 멀리까지 떠내려 왔는지 그 거리와 고통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며 많은 부분 하나님을 떠난 비진리적 요소를 포함하여 “자만의 언어”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다(추태화, 1999: 54). 물론, 이러한 문학은 저자와 본래적 의미를 잃은 문화가 얼마나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이로써 세계와 문화의 원저자(original author), 곧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타락한 세상을 형상화한 문학은 종종 세상의 타락을 미화하거나 옹호하는 등의 반기독교적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를 읽는 독자의 세계관 해석 능력과 문학 비평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면서 읽는 독서 행위와 저자의 저작 의도와 세계관을 규명하려는 “텍스트 해석”은 잠정적이고 불완전하나마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다(Vanhoozer, 2002, 김재영 역, 2007: 541-542; Vanhooser, 1998, 김재영 역, 2008: 711). 따라서 “문학 작품들의 정전(canon)은 성경의 정경과 똑같은 목적, 즉 장래를 안내한다는 목적에 기여한다”는 밴후저(Vanhoozer, 1998, 김재영 역, 2008: 552)의 이해는 올바른 해석을 지향하는 문학 교육의 또 다른 사명을 권고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아동들을 위한 죽음 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아동 대상 그림책들의 미적 즐거움의 영역인 상상력의 세계가 저자의 참 믿음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투영된 상상력을 형상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재현이 그림책 아동 독자들에게 도덕적 각성을 일깨우며 바른 진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그림책 문학의 텍스트 해석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그림책의 독자를 이중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비단 아동뿐 아니라 아동의 독서 행위와 감상을 매개하는 성인의 세계관과 해석적 관점이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각 그림책의 세계관을 판정하고 이를 선별하여 아동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그 감상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미치는 성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림책의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그 세계관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본 연구의 작업은 성인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동들에게 교육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편의상

죽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유형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죽음관의 네 가지 유형을 우선적으로 살핀 후 이를 전제로 기독교의 죽음관을 논의하고 이를 아동을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각각의 죽음관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기독교적 죽음관과 교육

기독교 문학을 비롯하여 많은 문학들이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한계 의식을 드러내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인식이 특별한 이유는 죽음에는 두 가지 역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누구나 죽는다는 확실성이요, 또 하나는 그 때와 그 이후를 알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이다.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죽음 너머의 세계 인식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천선영(2012: 87)은 현대인들의 이러한 사고 작용의 포기 원인을 초월성 관념의 부재 혹은 상실에서 찾고 있다. 현대인들은 근대의 무한한 신뢰의 대상, 즉 이성의 힘으로도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한다면 헛수고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현재의 삶을 최대한 누리고 난 후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택하는 쪽으로 인간 한계에 대한 대처법을 바꾸었다. 요즘 유행하는 화장 장례법을 죽음 의미의 축소와 의식의 간편화라고 이해하는 경향도 이러한 시대정신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이해는 시대, 상황, 신념과 종교 등의 변수에 틀림없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관점을 단순화하여 몇 가지로 유형화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웨버(Weber, 1922)는 고대 고고학적 예술품들에 드러난 죽음에 대한 관점을 분석해 보였는데 그의 이해를 토대로 인간이 죽음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내용을 4가지로 일반화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점은 인간의 육체를 인간 삶의 전부로 인식하여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이다. 이 관점대로라면 인간의 육체가 땅에 묻히고 분해되어 가면 그 삶도 함께 종결된다. 이를 원자론적 죽음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는 인간이나 동물을 한 가지로 이해하는 관점이 담겨있다. 인간을 물질의 원소로 이해하고 진화론적 사고를 따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의 존재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 영혼은 육체에 따른 부수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육체가 소멸함에 따라 영혼과 정신도 정지상

태가 된다는 이해를 가진다.

둘째, 불가지론 혹은 현세지향의 관점이다. 실증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믿는 이들로부터 지지되는 관점으로서 사후 세계의 존재와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결론짓고 더 이상 죽음 이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들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다가 임종의 고통 없이 잘 죽을 수 있는 방식에 관심을 가진다. 현대인들은 무엇이든 이성과 과학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믿음을 확장시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아직도 죽음의 문제는 무지의 영역에 남아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전근대적 불확실성으로 회귀하게 한다는 천선영(2012: 190)의 이해와 일치하는 관점이다. 또, 아동문학의 경우라면 문학 속 아동들은 죽음을 사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과 마주했을 때 불가지론의 관점을 종종 견지하게 된다(신미현, 문철, 2010: 246-247).

셋째, 영혼의 사후 실존 가능성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죽음과 더불어 육체가 소멸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지속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는 범신론이나 귀신론, 심령주의 등의 다양한 종교현상이 포함되기도 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인간이 분해되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현상과는 분리되어 인간의 영혼은 산 자들의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며 그 산 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때로는 그 영혼이 초현실적인 시공간으로 이끌려 갔다가 다시 현실 속에 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죽은 후에도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지만 사후 세계로의 진입으로 죽음의 이해를 확장시키지는 않는다.

넷째로 사후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서 죽음은 보다 나은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죽음 이후에는 현실보다 나은 세계에서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지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당장은 사별이 슬플 수 있으나 죽은 자들은 약속된 어떤 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이 기대된다. 잠시 분리되어 살아가는 기한이 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은 애착하는 사람과의 약속된 만남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분리불안이면서 기다림의 수고를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이 사회로 복귀하여 살아가거나 산 자의 주변에 기생하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세계는 대부분 현세의 어떤 종류의 삶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나타나는 양상도 각 개인의 신념과 종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기독교는 위의 네 가지 관점 중 기본적으로 사후세계를 믿는 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라이트(Wright)는 서구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참 다양한 믿음의 종류를 발견한다고 말한다. 화장 장례법뿐 아니라 사진이나 액세서리, 인형 따위를 죽은 자를 위한 선물로 관 속에 넣는 관습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현상을 조명하면서 이러한 관습이 반영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한다(Wright, 2007, 양혜원 역, 2013: 40). 실제로 유령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죽은 자와 접촉하는 자들의 숫자가 오늘날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기독교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작품들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비기독교적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지적해 보이면서 사후 세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두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히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 죽음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Wright, 2007, 양혜원 역, 2013: 17-41).

사후세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국의 개념은 지복의 상태를 가리키며 불멸한 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죽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상기하면 그 죽음성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죽음은 인간 타락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신학자들의 견해도 불구하고(Kelly, 1959: 358-361) 성경적으로 그 속성은 죄의 결과이다. “죽음은 금단의 열매를 먹는 데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창세기 2:17; Hoekema, 1979, 류호준 역, 2002: 118). 창세기 2:17에서 부과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즉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 중 하나는 육체의 귀결이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며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인생에게 임한 저주의 표증인 것이다. 이는 신약인 로마서 5:12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 역시 창세기 2:17의 변주이다. 분명 죽음으로 인한 육체의 썩어짐은 죄로 인해 인간의 삶에 부과된 것으로 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며 삶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한다(창세기 3:19; 로마서 6:23; 고린도전서 15:21; Berkhof, 1988, 권수경 외 역, 1991: 937). 여기까지의 관점은 앞서

살펴본 웨버의 원자론적 죽음관이나 불가지론의 죽음관과 매우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기독교 죽음관은 여기서 마지막이 아니라는 데 본질이 있고 희망이 있다. 우리의 죽음의 또 다른 역설은 죽음 이후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죄의 결과가 은혜의 결과로 바뀔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은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밝혀진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구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도 구속하셨다. 디모데후서 1:10에서 그리스도는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앞에 그의 자녀들의 죽음은 더 이상 죄의 대가로 주어질 수 없다는 명제가 새로이 부과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법적 선언을 토대로, 이제 죽음은 새 생명을 덧입고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새로이 변화되었다. 생물학적으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일차적 죽음이 결코 끝이 될 수 없으며(히브리서 9:27)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덧입어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인생의 종결보다는 연속과 불멸의 관점에서 해석되며 이는 단순한 불멸이 아니라 만물이 새롭게 된 곳에서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삶을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 죽음관 역시 기본적으로 웨버가 이해하고 있는 영혼불멸 사상을 일부 지지한다. 그러나 영혼불멸 사상은 기독교 고유사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고대 헬라 신비종교들이나 플라톤의 저서들에서도 영혼불멸 사상은 발견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영육의 이원론으로서 영혼은 신성하지만 질료인 육체는 열등하다는 견해를 견지한다. 사망할 때 육체는 분해되어 버리지만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성적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다른 생물체의 형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결과로서 영혼은 육체의 죽음 후에도 홀로 죽지 않으며 삶을 지속하거나 다른 종류의 삶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을 지지하는 자들은 “육체가 영혼을 위한 무덤”이라고 이해하면서 “실제로 육체가 없다면 더 좋은 상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Hoekema, 1979, 류호준 역, 2002: 126).

그러나 기독교의 영혼불멸의 의미는 타 사상의 영혼불멸의 속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경적 종말은 단순히 영혼만이 존재를 지속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전존재의 부활을 의미하며 현세의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영생인 것

이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불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다른 것이다. 악인의 부활은 인간에 내린 “사형 선고에 대한 집행 유예의 필연적 결과”라는 점에서 “주권적인 공의의 사역”이며 극한 형벌의 의미를 갖는다(Berkhof, 1988, 권수경 외 역, 1991: 999). 그러나 의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핵심적 은혜이며 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불멸은 현재 모든 인간이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여될 구속적 선물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은 불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으며(시편 102:26; 이사야 9:6; Hoekema, 1979, 류호준 역, 2002: 127)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할 존재는 다만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곧 전 존재를 포함하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5:52-54; Berkhof, 1988, 권수경 외 역, 1991: 997-998; Ladd, 1978, 이승구 역, 2000: 40-48). 이러한 이해는 웨버가 제시하는 영혼불멸 사상과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웨버가 말하는 영혼불멸은 플라톤의 사상에 더 가깝고 육체는 소멸하나 영혼은 산 자의 주변에 남거나 종종 출현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삶과 죽음,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일련의 직선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해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 죽음관은 다시 이전 세계로 회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누가복음 16:22-31). 또한 그 부활도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서로 이질적인 이해를 담고 있다. 물론 인간의 사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곧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중간상태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사후 세계를 후크마의 이해를 따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단일한 기대”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Hoekema, 1979, 류호준 역, 2002: 156).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자체는 여전히 실제적인 자연 악으로 남아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진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현시키는 일에 훌륭하게 기여하고 있다. 죽음에 관한 생각과 사별의 아픔, 질병과 애도의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유익을 주는 것이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위해 남겨 놓으신 축복이며 이러한 성화를 통해서만 죽음 후 상급이 주어진다는 이해를 돕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영혼의 성화를 완성”한다(Berkhof, 1991: 938). 그러나 이러한 성화 과정의 강조가 선행만을 통한 구원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선행은 구원받은 이들이 이미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며 그 증거로서 이해된다(빌립보서 2:12; 요한일서 2:4-6). 즉, 선행 자체는 결코 구원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구원의 결과로서 기쁘게 드러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현재 이곳의 삶을 살아가며 그 구원받은 증거와 말씀 순종의 결과로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만 이것을 구원의 공로로 삼는 우(愚)를 범하지 않는다(로마서 8:11; 데살로니가전서 4:16-17; 마태복음 5:16; 요한복음 5:24; 에베소서 5:9).

따라서 이러한 죽음관을 견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을 버리지 않는다. 현재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사후의 삶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이곳과 그곳 사이에는 상급의 기쁨과 더불어 누릴 연속성이 존재할 것이다(Hoekema, 1979, 류호준 역, 2002: 110).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는 결코 열등하지 않으며 영생의 약속은 단순히 영혼이 불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한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은 영혼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양태로 나타날 수 없으며 전인격적이고 존재 전체에 관한 구원관을 반영해야 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9-11)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에서의 죽음관은 이러한 죽음 이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의 종결이 삶의 끝이라고 믿는 원자론적 세계관과 구별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이미 여기서 소유하고 현세를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불가지론의 죽음관과도 대치된다. 또 육체는 소멸되어도 영혼만은 산 자의 주변을 떠돌며 살아간다는 영혼불멸의 관점은 우리의 영혼 뿐 아니라 육체도 함께 전인격적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기독교적 관점을 투영할 때 명백히 이질적인 관점이다. 그리고 기

독교 죽음관은 사후세계를 믿는 관점이지만 이 중 천국 입성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써만 주어지는 선물이며(에베소서 2:8) 이미 이곳에서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믿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요한복음 5:24).

그러나 이 같은 죽음의 문제를 유아나 아동 교육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이는 아동들의 삶과 다소 무관한 주제이면서 논의가 금기시되고 다루기 힘든 주제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사고사, 돌연사, 자살 등 많은 죽음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며 아동들 역시 이러한 죽음을 현실 속에서 주변의 식물, 동물, 부모나 조부모, 친구, 미디어 속의 내러티브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동들은 이러한 사건들과 현상을 경험하면서 죽음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이나 죽음에 대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주변에서 사별을 경험하고 나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으며, 아동기에 한 번 잘못 확립된 죽음관은 아동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장연집, 1998).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을 위한 죽음 교육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넬슨(Nelson, 1979: 137)은 이미 오래 전에 아동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과도한 두려움과 공포, 혹은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스토크와 그리피스(Slaughter and Griffiths, 2007: 525)는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아동이 죽음교육을 받고 난 후 죽음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해가 과학적인 이해로 바뀌었고 두려움과 공포도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확립한 아동은 현실 속의 죽음의 사건을 잘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게 된다고 보고되는데(양진희, 2006: 1; 이정희, 2007: 341) 이 연구들 역시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죽음을 교육한다는 것은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현실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고(Leviton, 1997: 41), 죽음에 집중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감수성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Crase, 1982: 1).

그동안 아동 교육현장에서 진행되어 온 죽음교육을 살펴보면 비가역성, 비기능성, 인과성, 보편성 등의 죽음의 생물학적 개념을 습득시키는 것이 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서현아, 1998; 박아청·정경숙, 2001; 이주옥, 2005; 양진희, 2006; 서현·김영보, 2012). 특히 죽음 교육은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았다(원계선·최일선, 2004; 장영숙, 2005; 박현경·윤현

민, 2008; 서현·김영보, 2012). 그림책이 죽음 교육의 자료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죽음의 이해는 인지적 개념 뿐 아니라 정서적 반응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별을 지켜본 아동에게 죽음은 아동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충격을 완화해 주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 그림책과 정서적인 치유 혹은 문학 치료적인 접근으로 수행한 연구들도 많다(양진희, 2007; 이찬숙·조메리명희, 2009; 이찬숙 외, 2010). 나아가 사별을 경험한 아동은 죽음 그림책에 드러난 주변 인물들의 애도 과정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애도의 감정을 동일시하고 그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으며 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일지라도 이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아동은 자신의 슬픔과 애도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여 건강한 자아를 구축하게 되고 이내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강현경·김성숙, 2012: 338-341; Wiseman, 2013: 11-13).

그러나 그림책 읽기를 통해 죽음의 필연성, 비가능성, 비가역성 등의 생물학적 개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죽음 교육 내용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관은 성화의 완성이고, 직선적이고 계속되는 생명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교육은 죽음의 양면성 중에 확실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불확실성이란 죽음 너머의 일이고 이것은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신념과 믿음의 측면으로서 그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측면 역시 순수하게 객관적인 영역이 아니며 교육의 중립성은 애초부터 성립되기 불가능한 영역이다(김희자, 1998: 17; Marsden, 1998, 조호연 역, 2000: 67). 교육이라는 것은 선택자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걸러내어 교육과정으로 조직화하여 가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는 '무엇을 진리라고 믿는가' 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문의 대답으로서 조직한 내용이 바로 교육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불확실성의 영역과 교육이라는 비중립성이 상호 주관적으로 만났다면 그 교육 현장에는 교육하는 자의 신념과 가치관이 중대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성인 교육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도서 선정과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의 재구성이라는 요소가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만큼은 특정 장르, 즉 판타지 문학으로서 허용되는 표현적 자유와 효용성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어 종국에 각 그림책 문학이 아동의 세계관 형성에 미칠 영향과 그 문학적 역할을 인식하면서 그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되며, 나아가 이러한 세계관의 안목을 가지고 문학을 선별하고 이를 교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에게 있어 기독교적 안목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교정하고 안내하는 일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III. 그림책의 죽음관 고찰

1. 분석 대상과 절차

그림책에는 다양한 죽음관이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그 해석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도서를 선정하고자 비확률적 유의표집을 실시하였고 선행연구들이 죽음을 다루고 있는 그림책으로서 목록화 하였던 도서 68권을 1차로 수집하였다.³⁾ 둘째, 1차로 선정된 도서 중에서 특별히 죽음에 대한 저자의 이해가 일관적이며 분명한 주제의식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죽음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와 설명 역시 비교적 해석이 용이하고 그러한 해석이 글과 그림 모두에서 상세하게 재현되고 있는 도서를 유목적적으로 추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유의표집 과정은 앞서 제시한 4가지의 죽음관이 골고루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분석적 기술(description)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번 재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처럼 표집된 도서는 그림책 전문가로부터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확정된 분석 대상 도서는 <표 1>과 같다.

3) 박현경·윤현민 연구(2008), 이찬숙 외 연구(2009), 서현 외 연구(2012) 등을 참고하여 목록을 작성되었다.

<표 1> 분석대상 도서

	도서명	출판연도	지은이	출판사	장르
1	무릎팍지	2010	샤를로트 문드리크 글, 올리비에 탈레크 그림	한울림어린이	생활
2	내가 함께 있을게	2007	볼프 에를브루흐 글, 그림.	웅진주니어	환상
3	우리 할아버지	1995	존 버닝햄 글, 그림.	비룡소	생활
4	내 친구 브로디	2003	조이 카울리 글, 크리스 무스테일 그림	베들북	생활
5	할아버지의 붉은 빵	2006	하인츠 야니쉬 글, 알료샤 블라우 그림	독일	환상
6	유령이 된 할아버지	2005	김 푸브오케손 글, 에바 에릭손 그림	소년한길	생활
7	채마밭의 공주님	2004	안데미 헤이만스 글. 마르그리트 헤이만스 그림	아이세움	환상
8	지구별에 온 손님	2014	모디케이 저스타인 글, 그림.	보물창고	환상
9	착한 사람이 가는 곳, 하늘나라	2003	마리아 슈라이버 글, 산드라 스페이텔 그림.	파랑새어린이	생활
10	천국 가는 버스 지옥 가는 버스	2009	화리테 칼라트바리 글, 그림.	큰나출판사	환상
11	천국에 채리가 익었다	2009	하디스 라자르폴라미 글, 호더 하더디 그림	큰나출판사	환상
12	맑은 날	2006	김용택 글, 전갑배 그림	사계절	생활
13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단다.	2012	리사 버그렌 글, 로마 브라이언트 그림	몽당연필	생활

또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분석 기준으로 하여, 그림책 서사에 반영된 죽음관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그 기술(description)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분석의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Denzin, 1989: 31). 이러한 배경에는 아동용 그림책의 대체적인 사회적 흐름을 밝히는 양적 연구방법보다는 본 연구목적인 해석적 접근(Hermeneutic)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서 제시한 각 죽음관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그림책 도서를 의도적으로 선별하고 이를 기독교적 죽음관과 심층적으로 비교, 고찰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 해석적 예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 2인은 먼저 표집된 13권의 그림책을 깊이 있게 반복하여 읽고 이미 선행적으로 인지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비추어 그 내용에 있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내용에 대한 해석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두 번째로, 1차 해석되어 제시된 자료는 제 3의 동료 연구자로부터 분석의 방법과 내용적인 타당도에 관한 검증을 받았다(김영천, 2013: 634). 또한 선임연구자의 추적 검사를 통해 그림책 서사의 데이터 근거 여부, 분석적 기술과 타당도, 해석의 질, 추론의 논리성, 그리고 연구자 주관성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김영천,

2013: 635). 이들 제 3의 연구자들은 기록된 내용의 검토 작업의 절차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들의 해석적 타당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2. 그림책에 재현된 죽음관 분석

(1)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이다.

사실 아동들을 위한 일반 죽음 개념 교육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필연성, 죽으면 모든 기능이 멈춘다는 비가능성,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다는 비가역성은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그림책 중에서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가 다른 일체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매우 사실적이고 단호하게 제시되는 도서들이 있다. 죽음 인식 가설 중에 원자론적 가설을 전제로 했다고 이해될 수 있는 도서들이다. 『무릎 딱지』⁴⁾라는 그림책은 “엄마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라는 실존주의적 인식을 드러내는 말로 차갑게 시작한다[그림 1]. 이 일로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는 자신 안에 있는 엄마의 냄새, 엄마의 눈빛, 엄마의 목소리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온통 걸어 잠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다치고 피가 날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아이는 자신 안에 엄마의 목소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가두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그러나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다쳤던 자리의 무릎 딱지가 말끔히 사라져 있다[그림 2]. 이는 아이가 엄마의 사별로 인해 경험했던 심리적 상처의 완전한 치유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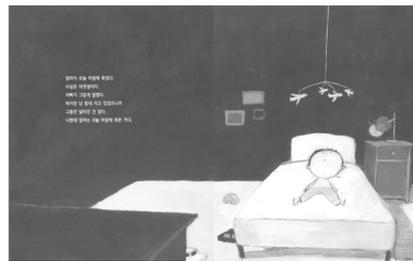
이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빨간 색으로만 칠해져 있다. 그림책에서 색깔은 또 하나의 기호학적 의미를 가진다(나선희, 2013: 206; Massin, 1993, 김창식 역, 1994: 19). 빨강이라는 색깔의 의미는 문화마다 다양하게 해석되므로 문화적 코드로 읽어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 이 도서는 피라고 하는 모티프를 엄마의 생물학적 죽음의 원형적 이미지와 접목시키려고 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도서는 엄마의 죽음을 물리적으로 피가 나오는 상처와 이쁨으로 유비하여 형상화하였다.

4) 프랑스 그림책 작가인 샤를로트 문드리크(Charlotte Moundlic)가 글을 쓰고 올리비에 탈레크(Olivier Tallec)가 그림을 그린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이경혜가 번역하여 한울림어린이 출판사가 2010년 출판하였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엄마는 조그만 먼지로 변해 갈 거라는 아이의 목소리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살아있지 않는 게 죽음이란 걸 안다는 아이의 언어는 아이가 엄마의 죽음을 원자론적 관점에서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죽음은 곧 육체의 ‘끝’을 의미하며 그 이상은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 도서는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떠한 상상력도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문학으로서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엄마의 죽음과 그 존재의 끝을 알고 아이가 이러한 결별을 둘러싼 자신의 복합적인 감정과 씨름하며 이겨내는 모습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 의식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이러한 한계 의식이 필연적으로 의문을 갖고 해결해야 할 인간의 죽음이 가진 의미와 그 이후에 대한 이해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죽음관과 매우 상이하다.



[그림 1] 『무릎 딱지』



[그림 2] 『무릎 딱지』

『내가 함께 있을게』⁵⁾는 아동으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고 친근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이다. 이 도서에는 죽음에 임박한 오리가 등장하고 해골 얼굴을 한 죽음의 실체도 함께 등장하여 오리의 죽음 인식을 돕는다. 의인화된 죽음은 오리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생활을 함께 하면서 점차 친해진다. 어느 날 오리는 아주 편하게 죽음을 맞게 되고 죽음은 오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죽음은 오랫동안 떠내려가는 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오리가 보이지 않게 되자 죽음은 조금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삶은 끝이 있고 끝과 함께 사라진다. 해골이 보여주는 무표정한 얼굴, 축 늘어진 오리의 육체, 해골이 물고 있는 시든 장미, 그리고 무채색의 배경 등은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죽음의 삭막

5) 1993년 독일아동문학상 수상작가인 볼프 에를브루흐(Wolf Erlbruch)가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린 그림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연이 번역하여 웅진주니어가 2007년 출판하였다.

함을 표현해 주고 있다[그림 3].

이러한 죽음에 대한 묘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육체의 끝, 즉 생물학적 삶의 종결인 흙으로 돌아감에 대한 의미만을 강조하고 영혼의 향방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의문과 이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독교 죽음관과 상치된다. 기독교 죽음관은 인간의 죄로 인해 부과된 사망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으로 인해 영생의 축복으로 전복되었다는 내용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현세를 살아가며 죽음 이후의 귀결에 대한 이해와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해석하고 준비한다.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교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지복의 공간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무서워하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 세계가 총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림 3] 〈내가 함께 있을게〉

2. 죽음 이후는 알 수 없다.

그리스도인 역시 죽음 이후를 모두 알기 힘들다. 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알 수 없다고 하여 죽음 이후의 삶을 무시하거나 무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교리의 핵심이다. 그러나 죽음 불가지론의 이 관점은 현재 알 수 없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삶의 추구를 포기하고 현재적 생활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변종의 사고로 기울게 되는 것이다. 천선영도 죽음에 대한 현대인들의 이해를 연구하면서 초기 근대 이성에 대한 이상은 “근대적 확실성의 해체라는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다”고 표현한다(천선영, 2012: 190) 현대인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 이후의 세계뿐 아니라 죽음 자체를 없는 것으로, 그 어떤 의미도 부여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소정의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다는 뜻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죽음에 더 이상 대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죽음을 의식적으로 성찰하고 고민할 주제로서 표면화시키지 않는다(천선영, 2012: 192).

물론 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에게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알 수 없음’의 관점은 아동의 발달단계와 그 생각을 반영하는 그림책에서도 보편적인 관점이다. 이제 남아있는 사안은 살아남은 아이와 그 주변 인물들이 임종의 고통과 헤어짐의 슬픔을 하루빨리 추스르고 다시 건강한 삶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림책에서 죽음의 슬픔을 최소화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아주 빨리 사별의 슬픔에서 헤어 나온다. 이들에게는 아직 살아나갈 미래적 삶이 중요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유명 작가인 존 버닝햄(John Burningham) 작품 『우리 할아버지』⁶⁾에서는 할아버지를 그저 놀이 상대로 인식하는 한 여아의 시각이 그려진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그림책에 부모는 등장하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유일한 친구로서 아이가 던지는 모든 물음에 답해주는 해결사요, 모든 놀이 행위의 상대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할아버지에게서 갑자기 “오늘은 나가 놀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죽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도 할아버지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새로운 놀이를 구상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면에서 할아버지는 사라지고 없다. 이 때,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늘 앉아 계시던 의자의 빈 공간을 아이는 말없이 응시한다. 그러나 아무도 아이에게 사라진 할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 아

6) 영국의 3대 일러스트레이터이면서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Kate Green Away Award)을 비롯해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진 존 버닝햄(John Burningham)의 그림책으로 국내에서는 비룡소 출판사에서 1995년 출판하였다.

이는 골똥하나 슬퍼하지 않는다. 마지막 장면이다. 아이는 드넓은 들판에서 장난감 유모차를 신나게 밀며 달리고 있다. 커다란 해는 아이의 밝은 미래를 비춘다. 아이의 회복력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아이의 빠른 회복력만큼 이 그림책을 읽는 독자들도 죽은 자의 거취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거두고 살아남은 자가 건강하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사실에 서둘러 안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독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의미와 그 이후 삶의 상태에 대한 이해는 드러나지 않는 그림책들이라 할 수 있다.

『내 친구 브로디』⁷⁾는 평소 조종사가 꿈이었던 브로디가 죽고 난 후 같은 반 학우들이 선생님과 함께 그를 추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들이 교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다양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죽음의 의미를 교육할 좋은 기회가 주어지나 교사의 답변은 아무 것도 알 수 없다고 정리된다. 이들은 결국 친구 브로디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한 본질적 의문은 뒤로 한 채 브로디가 생전에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 추억의 의미는 바로 사랑이라는 감성적인 이해를 추구하려 노력한다. 또 현재 어디 있을지 모를 그 친구에게 엽서를 쓰며 그리움을 승화시킨다. 이제 살아남은 자들 모두에게 죽은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었다. 남은 문제는 산 자들이 죽은 자와의 그리움과 추억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과 상처 입은 내면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애도를 마무리하고 평안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가 되었다.

이러한 불가지론의 관점은 죽은 자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간 본질의 문제에 접근하기보다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그 애도의 감정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현세지향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죽음 이후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독교적 관점과는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책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세의 삶을 살아나갈 가치와 방향성을 바람직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자신에게 임한 구원과 죽음 이후의 부활을 이미 믿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완성해가기 때문이다(요한복음 5:24; 에베소서 1:13). 따라서 위의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저자가 진리에 토대

7) 뉴질랜드 작가인 조이 카울리(Joy Cowley)가 글을 쓰고 크리스 무스데일(Chris Mousdale)이 그림을 그린 그림책으로 국내에서는 김연수가 번역하여 베들복 출판사가 2003년 펴냈다.

를 두고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지 않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서 오는 상상력으로 죽음을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책을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할 때 독자의 바른 해석과 진리로 이끄는 교육적 상호작용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3. 육체는 소멸되나 영혼은 지속된다.

영혼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산 자의 주변을 떠돌거나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어 숨바꼭질을 하며 산 자들의 삶에 기생하려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영혼불멸의 죽음관에서는 죽은 자의 육체는 소멸되나 그 영혼만은 산 자와 공생하여 살아가거나 어떤 장소로 이동 혹은 변형되어 존재하다가 때때로 산 자들의 현실 속에 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혼불멸의 죽음관은 그림책이 허용하는 무한한 상상력 안에서 익살스럽고 즐겁거나 때론 비밀스럽게 재현되기 마련이다. 그림책의 주 독자인 아동은 사별한 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과 함께 지금 여기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싶어한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치유와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을 기독교적 죽음과 대비시켜 보았을 때 이 같은 도서가 아이들의 죽음관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할 것인가 쉽게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서에는 범신론이나 무속적 귀신론, 심령술 같은 다양한 사상이 매개되어 있다.

베스트셀러 『유령이 된 할아버지』⁸⁾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유령이 되어 손자의 주변을 맴도는 이야기를 유머 있게 그렸다. 부모들은 할아버지의 존재를 꿈을 통해 인식하지만 아이는 현실 속에서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그 조우는 하나의 비밀스러운 놀이다. 할아버지는 헐리웃 영화에 나올법한 벽을 통과해 다니는 멋진 능력을 보여주며 아이에게는 더없이 자상한 모습이다[그림 4]. 『할아버지의 붉은 뺨』⁹⁾의 경우는 영혼의 실존이 좀 더 진지하게 그려진다. 첫 장면부터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

8) 덴마크 작가 김 푸브오케손(Kim Fupz Aakeson)이 쓰고 에바 에릭손(Eva Eriksson)이 그림을 그린 도서로 김영선이 번역하여 소년한길 출판사에서 2005년 출판하였다.

9) 오스트리아 작가 하인츠 야니쉬(Heinz Janisch)가 저작한 그림책으로 2006년 볼로냐(Bologna) 국제 아동도서전 픽션 부문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고 국내에서는 박민수가 번역하여 웅진주니어 출판사에서 2006년 출판하였다.

는 손자를 앉혀놓고 과거의 무용담을 과장스럽게 늘어놓는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도가 지나치다고 느낄 때쯤 “할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잖니?” 하는 어른들의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끼어든다. 그러나 할아버지도 지지 않고 맞선다. “그래서 뭐?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귀찮은 거라도 있냐!” 여기서 죽음이 뭐 대수인가 하는 할아버지의 무심한 대거리는 오히려 독자에게 실재감을 준다. 자신을 누구에게 공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할아버지의 능력은 특별히 에스본이라는 손자에게만 그 실존을 나타내 보인다는 점에서 에스본에게는 애뜻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할아버지는 “여든 살 생신이 지나고부터는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투명인간”처럼 된 자로 묘사된다. 그러나 두 뺨만큼은 붉다. 손자 에스본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만큼은 뺨이 붉어지고 무척 즐겁다[그림 5]. 여기서 붉은 색 역시 우리의 의식 체계를 뛰어넘는 다른 종류의 생명의 실존을 의미하는 제 3층위의 기의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Crow, 2003, 박영원 역, 2008: 34-35). 여기서 기의란 기표에 대응되는 기호학적 의미를 뜻하는데 여기서 빨간색은 ‘살아있음’이라는 의미에 대한 은유적 대체를 통한 도상적 기호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 이야기에는 두 층위의 삶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다. 이러한 이중적 삶의 공간 속에서 에스본은 무엇이 진정한 현실인지를 혼돈스러워 하면서도 오히려 육체 없는 영혼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을 한층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이의 영혼이 현세에 회귀하여 또 다른 층위의 공간에서 산 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해는 기독교적 죽음관과는 무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도 귀신의 존재가 인정되지만 이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의 다른 이름이거나 그 하위 계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누가복음 11:18) 죽은 자의 향방과는 무관하다. 성경에서 귀신과의 교제는 죽은 자와의 교제가 아니라 사탄과의 교제라는 점에서 철저히 금지된다(디모데전서 4:1; 고린도전서 10:20-21).

죽음을 서정적인 필체로 다루고 있는 『채마밭의 공주님』¹⁰⁾도 죽음에 대한 마찬가지로 이해를 다루고 있다. 다만 사별한 엄마는 아이들과 목소리만으로 공존한다. 누나 ‘하나’는 엄마의 기억을 계속 간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 엄마의 목소리가 끼어들어도 투명스럽게 반응하지만 그것이 엄마에 대한 배척을

10) 네덜란드 작가 안네미 헤이만스(Annie Heymans)가 쓰고 마르그리트 헤이만스(Margriet Heymans)가 그린 그림책이다. 안네미 헤이만스는 이 도서로 1994년에 ‘베첼더 상(Batchelder Honor)’을 수상했다. 국내에서는 서애경이 번역하였고 2004년 아이세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는 엄마가 생존하셨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매우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공간은 엄마가 주로 기거하던 방과 생전에 소중하게 가꾸던 채마밭이다. 누나 ‘하나’는 동생 ‘마테’에게 엄마의 유물들을 채마밭으로 가져오라고 요구하게 되고 이 때 ‘마테’도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결국 이 가족 내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지한 아빠까지 엄마가 불어온 바람에 밀려 채마밭으로 오게 되고 이들은 모두 함께 다시 엄마의 공간 속에서 살게 된다[그림 6]. 이 그림책 역시 엄마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공간은 밝고 따뜻한 유채색으로, 그리고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무미건조한 무채색으로 그리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실존적 공간임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영혼이 불멸하며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이해는 아동 문학에서 매우 일반적이며 그 재현은 다양한 형태로 펼쳐진다. 아이는 사별한 자와 영원히 헤어지고 싶어하지 않으며 그러한 회구는 상상력의 힘을 빌어 문학 안에 고스란히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이는 치유라고 하는 문학적 효용을 아이에게 가져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효용 자체를 위한 문학의 비진리성은 또 다르게 탐구되어야 할 주제가 된다. 특히 신념과 믿음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문학적 주제라면 그 선정에 있어 많은 탐색과 사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해된다. 이 그림책들이 보여주는 죽음 이후에 영혼이 불멸하며 산 자의 삶 주변에 비밀스럽게 실재한다는 이러한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는 기독교적 이해와는 상이하며, 죽은 영혼이 이 세상으로 회귀한다는 이해 역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직선적 세계관, 즉 결코 다른 종류의 삶을 위해 이전 단계로 회귀하거나 죽음 이후에는 현세적 삶의 다른 기회나 대안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죽음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해라고 할 수 있다(누가복음 16:25-31).



[그림 4] 『유령이 된 할아버지』



[그림 5] 『할아버지의 붉은 뺨』



[그림 6] 『채마밭의 공주님』

4.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

죽음 이후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그림책에 반영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세계관의 유형은 다른 관점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인간과 동물의 순환적 탄생이라는 윤회적 이해를 다루고 있는 그림책, 『지구별에 온 손님』¹¹⁾이 그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티벳에 태어난 한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때 아주 밝은 어느 장소에서 한 신적 소리를 만난다. 그 미확인 소리로부터 그는 “천국이라 일컫는 이 끝없는 우주의 일부가 될지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겠는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의 선택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살고 싶은 행성, 대륙, 생물체, 부모에까지 미친다. 결국 이 소년은 생전에 그토록 염원하던 소녀로 희생하여 살아가게 된다[그림 7]. 이러한 관점에서 죽음은 또 다른 종류의 현세적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며 이러한 삶은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이해를 가진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직선적 세계관을 표방하는 기독교 죽음관과 완전히 상치된다.

『착한 사람이 가는 곳, 하늘나라』¹²⁾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부모가 딸 케이트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이다. 천국에 대한 상상력은 케이트로 하여금 이전에 죽은 애완동물 루루가 죽어서 간 곳이 방금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가신 곳

11) 미국 작가인 모디케이 저스타인(Mordicai Gerstein)의 저작이며 뉴욕 타임즈 ‘주목할만한 올해의 우수 그림책’으로 선정된 도서로 국내에선 신형건이 번역하여 보물창고 출판사에서 2014년 출판되었다.

12) 미국 작가인 마리아 슈라이버(Maria Shriver)가 쓰고 산드라 스페이델(Sandra Speidel)이 그린 그림책으로 국내에선 이경혜가 번역하여 파랑새어린이 출판사가 2003년 출판하였다.

과 같은 장소일까를 궁리하게 만든다. 그는 혼자서 동물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성격의 곳이지만 다른 장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 버리지만 부모는 이러한 말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트의 엄마는 할머니가 죽은 후에 천사가 데려가는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이해하면서 “죽은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가르친다. 또, 천국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설명해준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하늘나라의 모습도 다르고 부르는 이름도 서로 다르지만 선행을 베풀며 살았던 사람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곳에 가게 된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그림 8]. 이러한 이해는 먼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관과는 다르다. 또 이 그림책은 천국이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선행한 사람이 가게 되는, 그 행실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공간이라는 이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에베소서 2:9; 갈라디아서 2:16).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행은 신앙의 열매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성향과 영화롭게 하려는 동기 속에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세상의 도덕을 반영하는 일반적 선행과는 구별되며(마태복음 15:9) 무엇보다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없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사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사도행전 4:12)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천국행의 조건을 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위의 그림책의 이해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과는 완전히 상치된다.

그림책 속의 천국에 입장하는 조건도 각양각색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그림책에서 천국은 주로 선행한 자들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덕적 경계를 하고 착하고 바른 아이로 커가기를 바라는 저자의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림책에서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러한 묘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리스도인의 구원관과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관점이라는 사실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천국 가는 버스 지옥 가는 버스』¹³⁾에도 누가

13) 이란 작가 화리데 칼라트바리(Farideh Khalatbaree)작품으로 2006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라가치상(Bologna Ragazzi Award) 수상작이다. 국내에선 김영연이 번역하여 2009년 큰나 출판사가 출판하였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원래 이 버스는 행선지가 지옥이었다. 버스 승객들과 버스 기사는 모두 이 버스의 종착역이 지옥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버스는 종국에 그 진행방향을 바꾼다. 왜냐하면 출발하자마자 모두가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참회하면서 자신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착하고 겸손한 마음은 지옥행을 천국행으로 바꿀 만큼 유효한 열쇠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천국에 체리가 익었다』¹⁴⁾는 하디스 라자르콜러미(Hadis Lazar Gholami)라는 이란 작가의 도서다. 이 그림책은 죽은 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서로 오가기도 하고 혹 지옥에 갔더라도 착하게 살거나 선한 행동을 하면 천국으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해는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천국관이라는 점에서 진리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죽음 이전의 믿음의 내용으로 이미 천국행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질적인 두 사후 세계 간의 이동 가능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에베소서 1:13; 4:30; 골로새서 1:13; 누가복음 16:22-31). 또 이 책은 지옥에 거주하는 아빠가 왜 지옥에 가야 했는가에 대한 대답도 마련해준다. 여기서 아빠가 생전에 행한 아동 학대는 지옥에 갈만한 충분한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을 단편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위험한 작업일 수 있다. 그러나 독자가 수긍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세계관의 배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비진리의 내용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처럼 전후 맥락이 생략된 단편적인 내용들이 아동들의 신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그림책들은 모두 선행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악행을 지옥에 갈 조건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계속 설명해 오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일에 실패한 인식이 범하기 쉬운 오류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로마서 1:17; 갈라디아서 2:16).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의식을 그린 운문그림책 『맑은 날』¹⁵⁾은 장례 의식을 객지에서 모든 친척들이 한 데 모이는 “명절처럼 반갑고 사람 사는 집처럼 굴뚝마다 연기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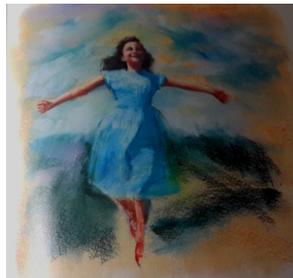
14) 2004, 2006년 볼로냐 라가치 상 수상작으로 이란 작가 하디스 라자르콜러미(Hadis Lazar Gholami)가 글을 쓰고 호더 하더디(Hoda Haddadi)가 그림을 그렸다. 역자는 김영연으로 큰나 출판사에서 2009년 국내에 소개했다.

15) 사계절 출판사에서 2006년 출판한 우리 문화 그림책 시리즈 중 하나로 김용택 시인의 시 『맑은 날』에 전갑배 교수의 그림이 더해진 시 그림책이며 김수영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다.

고 방들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풍경으로, 할머니의 “죽음과 상관도 없어 보이는 평화롭고 때로는 아늑해” 보이기까지 한 장면으로 형상화한다. 한국인들의 전통적 장례의식은 슬픔의 절차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좋은 곳으로 떠나보내면서 가족이 한 데 모이는 하나의 축제의식이기도 한 것이다. 사후세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이별의 의미를 제외하고는 크게 슬퍼할만한 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은 새로운 세계에서의 반가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들은 무속적 사후세계를 믿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수고와 짐을, 신발 벗듯 벗어놓고 더 좋은 세상으로 건너가는 자를 향한 축복의식의 장례를 치르면서 죽은 자의 안녕을 확신하는 평안함을 드러내고 있다[그림 9]. 그러나 죽음을 해석하는 어떤 언급에도 그 저승의 성격이 무엇이며 이러한 저승행이 어떠한 믿음이나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지에 대한 대답은 발견할 수 없다. 이들의 관점에서 저승은 천국과 지옥을 한데 묶어 놓은 막연한 곳이며 믿음의 내용과 상관없이 죽은 자 모두가 차례로 만나 살게 될 어떤 미지의 장소이면서 이렇게 죽은 자는 귀신의 형태로 인간의 삶에 종종 출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죽음관과는 전혀 이질적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후세계는 사망과 생명의 세계가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고(누가복음 16: 20-31),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역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요한복음 14: 6). 다만 이러한 문학적 진리를 잃은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주는 예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7] 지구별에 온 손님



[그림 8] 착한 사람이 가는 곳,
하늘나라



[그림 9] 맑은 날.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단다』¹⁶⁾는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천국은 어떠

한 곳인지를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는 책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씌어진 그리스도인의 작품이다. 따라서 글 텍스트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조된다. 사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다.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 이외에 무리하게 많은 것을 상상하여 설명하려다 보면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 그림책은 적당한 은유와 환유를 사용하고 인간의 인식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내 물건들 가져가도 돼요?” 라는 아이의 질문에 아빠는 우리 물건은 천국에서 필요 없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물건은 사랑, 믿음과 같은 무계가 안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해준다. 두 세계 사이에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어떠한 조건이 매개되어 있고 그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해를 드러내면서(요한복음 5:24; 에베소서 1:13) 미래에 전적으로 임할 축복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수행하는 성화의 내용은 천국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이해를 보여준다. 이 그림책은 같은 시리즈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단다』와 한 쌍을 이룬다. 이 책의 내용대로라면 천국이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서둘러 천국에 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숨씨를 충만히 드러낸 이 세상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여주면서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이 그림책들은 적절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사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누가복음 17: 20-21).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공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Ladd, 1959, 신성수 역, 1982: 54). 이러한 삶과 죽음에 관한 관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진리 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저자의 거듭난 상상력을 통한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거칠 때 실현될 수 있다.

IV. 결론

죽음과 그 의미는 주관성이 강한 영역으로 이것이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비중립적

16) 리사 타운 버그렌(Lisa Tawn Bergren)이 쓰고 로라 브라이언트(Laura Bryant)가 그린 작품으로 김서정이 번역하여 몽당연필 출판사가 2012년 국내에 소개했다.

이것도 유목적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더욱 그 보편성의 가치를 잃게 된다. 따라서 죽음 교육은 교육자의 주관적인 믿음과 신념을 투영하여 수행된다고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과 삶의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아동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가르쳐지는 이해와는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세계관을 점검하고 교육 자료와 내용을 선정하는 일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아동들의 죽음 교육의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그림책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해 보였다. 특별히 그림책에 반영된 죽음관을 웨버가 제안한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먼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으로 인식하는 원자론적 죽음관과 죽음 이후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의 죽음관도 그림책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중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불가지론이 반영된 도서의 경우 아동의 심리적 회복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남은 자의 현세적 삶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 관점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죽음 이후를 소망하며 현재의 삶의 방향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위배되는 이해임을 밝혔다. 또, 영혼불멸의 죽음관 역시 그림책에 다수 나타났는데 이러한 관점에는 육체는 소멸하나 영혼만은 산 자의 주변에 남아 그들과 공존한다는 이해와 독자인 아동에게 사별이 끝이 아니라는 내용의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세계를 그리고 있는 그림책들이더라도 동일한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더라도 이들이 모두 동일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내용과는 대치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특히 아동 문학의 상상력과 환상성이 죽음 이후를 그리는 일에만 반영되어 나타나는 일이 많아 해석상의 난점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었다. 또 이는 단순한 해석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저자의 그릇된 세계관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은 저자의 상상력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참 진리를 투영하지 못하여서 발단된 것임을 제시하면서 도서 선정에 있어 그리스도인 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학은 선한 즐거움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훈성, 즉 진리를 드러내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문학 텍스트의 창작 작업 뿐 아니라 해석 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벤후저는 “모든 해석학은 신학적”이라고 역설한다(Vanhooser, 2002, 김재영 역, 2007: 336). 물론 그는 저자를 잃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저자의 의도와 가장 가까운 해석을 하는 것이 모든 문학의 원전이기도 한 성경을 해석하는 행위에도 관련이 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또한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텍스트에 있어 저자의 숨겨진 의도와 그 비진리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자의 거듭난 상상력과 이에 따른 표현방식은 매우 중요한 문학적 요소가 되며 이를 감상하고 비평하는 자들에게도 진리에 바탕을 둔 해석 작업이 필수적인 교육 절차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문학을 통해 소정의 즐거움과 어떤 효용을 얻었다 할지라도 저자의 세계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진리를 거스르는 해석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 감상과 비평의 다양한 기술은 신앙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문학 교육은 독자에게 양질의 미적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또한 독자의 바람직한 세계관 형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문학의 경우, 바람직한 신념 형성에 적합한 도서 선정과 그 제시에서부터 아동과 공동의 그림책 읽기 과정을 통해 의미 형성에 상호작용 하는 등의 교육적 활동을 통해 그 해석적 의미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성인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성인의 그림책 선정과 교육적 적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후에는 본 연구에서 고찰한 그림책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특정 죽음관을 반영한 그림책에 대한 반응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그 교육적 방향을 실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그림책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진리에 적합하도록 재해석된 관점을 반영한 성인의 적절한 교육적 안내를 통해 실제적인 독자인 아동의 세계관이 기독교적으로 재구성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현경·김성숙 (2013). “유아의 애도과정에 대한 문헌적 고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325-345.
- 고문숙 외 (2013). 『아동문학교육』. 서울: 양서원.
- 김세희·현은자 (1995). 『어린이의 세계와 그림 이야기책』. 서울: 서원.
-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I』. (2nd ed.).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우창 (1991). 『경계를 넘어 글쓰기-다문화세계 속에서의 문학』. 서울: 민음사.
- 김희자 (1998). “기독교학교의 본질과 목적.” 『기독교교육연구』, 9(1), 7-29.
- 나선희 (2013). “그림책 서사에서 그림의 색이 갖는 의미.” 『문학교육학』, 41, 205-237.
- 박아청·정경숙 (2001). “아동의 보존개념 발달수준과 죽음에 대한 정서경험수준이 죽음의 개념발달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5(4), 177-196.
- 박연하·최종욱 (2010). “자살관련 미디어 노출 빈도에 따른 유아의 죽음불안의 차이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387-403.
- 박현경·윤현민 (2008). “그림책 속에 나타난 죽음.”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9(2), 25-49.
- 서현·김영보 (2012).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4), 269-293.
- 서현아 (1998). “연령에 따른 유아의 죽음개념 인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19(1), 97-118.
- 신미현·윤철 (2010).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형성과 의미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1(3), 245-255.
- 안지성 외 (2011).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에 나타난 아이 소외.”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135-160.
- 원계선·최일선 (2004). “그림책을 활용한 반 편견 교육활동이 유아의 장애 수용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1(2), 447-466.
- 양진희 (2006).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27(3), 1-27.
- _____ (2007). “문학적 접근을 통한 죽음 개념교육이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 12(4), 49-74.
- 이정희 (2007). “아동의 죽음개념 발달과 죽음대비교육.” 『목포과학대학논문집』, 31, 341-368.
- 이주옥 (2005). “죽음에 대한 유아의 개념 형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 이찬숙 외 (2010). “그림책을 통한 죽음 교육이 아동의 인터넷 게임 중독, 죽음 개념 및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4(6), 251-272.
- 이찬숙·조메리명희 (2009).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교육이 유아의 죽음개념 및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권리학회』, 13(3), 417-437.
- 장연집 (1998). “아동기 죽음개념의 발달과 충격완화를 위한 비탄치료의 기초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4, 127-147.

- 장영숙 (2005). “그림책과 명화를 활용한 미술프로그램이 유아의 미술 감상능력과 미술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97-110.
- 천선영 (2012). 『죽음을 살다: 우리 시대 죽음의 의미와 담론』. 서울: 나남.
- 추태화 (1999). 『기독교 영성에 비추어 문학 새롭게 읽기』.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 현은자 (2003).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 보기』. 서울: 학지사.
- 현은자 외 (2004). 『그림책의 그림 읽기』. 서울: 마루별.
- 현은자·김세희 (2005). 『그림책의 이해1』. 서울: 사계절출판사.
- Berkhof, L. (1988).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이상원 역 (1991). 『벌코프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Cruse, D. (1982). *Death Education's Quest for Maturity*. ERIC No. ED214489. 1-14.
- Crow, D. (2003). *Visible Signs*. 박영원 역 (2008). 『기호학으로 읽는 시각디자인』. 서울: 안그라픽스.
- Denzin, N. K. (1989).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Gallagher, S. V. and Lundin, R. (1989). *Literature through the Eyes of Faith* 김승수 역 (1995). 『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 서울: IVP.
- Hoekema, A. A. (1979). *The Bible and the Future*. 류호준 역 (2002). 『개혁주의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_____ (1986).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2004).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Kelly, J. N. D. (1959). *Early Christian Doctrines*. New York: Harper and Row.
- Ladd, G. E. (1959). *The Gospel of the Kingdom*. 신성수 역 (1982). 『하나님나라의 복음』.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 _____ (1978). *The Last Things: An Eschatology for Laymen*. 이승구 역 (2000). 『개혁주의 종말론 강의』. 서울: 이레서원.
- Leviton, D. (1977). “The Scope of Death Education.” *Death Education* 1. 41-56.
- Marsden, G. M. (1998).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조호연 역 (2000). 『기독교적 학문 연구 @ 현대 학문 세계』. 서울: IVP.
- Massin, R. (1993). *La Lettre et L'Image*. 김창식 역 (1994). 『글자와 이미지』. 서울: 미진사.
- Nelson, M. (1979). “Children's Concepts of Death.” *The Journal of Genetics Psychology* 134. 137-139.
- Nikolajeva, M. (2005). *Aesthetic Approaches to Children's Literature: An Introduction*. 조희숙 외 역 (2009). 『아동문학의 미학적 접근』. 서울: 교문사.
- Noddleman, P. (1996). *The Pleasures of Children's Literature*. 김서정 역 (2012). 『어린이문학의 즐거움1』. 서울: 시공주니어.
- Ryken, L. (1985). *Windows to the World: Literature in Christian Perspective*. 권연경 역 (1991). 『기독교와 문학: 세계를 바라보는 창』.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Slaughter, V. and Griffiths, M. (2007). “Death Understanding and Fear of Death in Young Children.”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5). 525-535.

- Vanhoozer, K. J. (2002). *First Theology*. 김재영 역 (2007). 『제일 신학』. 서울: IVP.
- _____ (1998).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김재영 역 (2008).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서울: IVP.
- Veith, G. E. (1990). *Reading between Lines*. 김희선 역 (1994). 『그리스도인에게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 나침반사.
- Weber, F. P. (1922). *Aspects of Death and Correlated Aspects of Life in Art, Epigram and Poetry*. London: Lewis.
- Wiseman, A. M. (2013). "Summer's End and Sad Goodbyes: Children's Picturebooks about Death and Dying." *Children's Literature in Education* 44. 1-14.
- Wright, N. T. (2007). *Surprised by Hope*. 양혜원 역 (2009).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서울: IVP.

ABSTRACT

A Christian Examination on Picture Books for Children as Materials for Death Education

Ra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Eun-Ja Hyu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4 types of understanding on death appearing in picture books and argues that there are different perspectives from the Christian point of view in them. Thirteen books which deal with the theme of death are se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words and the pictures of these books in a literal and semiotic level in order to draw the authors' ideas of death and afterlife. As a result, it is revealed that these picture books show diverse views on death; firstly, not a few of the books reflect the ideas of 'atomism' 'agnosticism' and 'immorality of the soul' on death. These viewpoints contain certain educational purposes in order to minimize children's grief. Secondly, all the books in 'belief in afterlife' include the idea that we cannot judge it in a single viewpoint. Only a small minority of books has Christian faith-based viewpoints even in the picture books dealing with afterlife. In this respect,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adults' role not only in choosing the books with regard to the worldview but also in reconstructing the meaning of contents in co-reading the books with children.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elements of non-truth concerning death and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God in these books from the view of Christian faith. Finally, it is argued that the authors' born-again imagination and the critics' ability to interpret the authors' hidden views on life and death are crucial for shaping a desirable Christian worldview for children.

Key words: perspectives on death, picture books, death education, born-again imagination, Christian worldview.

